안전벨트 안 매고 음주운전하고

부끄럽다, 광주·전남 안전의식

흡연율 17.4%로 감소…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 증가
광주, 뒷자리 벨트 착용률 23.2% '전국 꼴찌서 두번째'
전남, 음주운전 3.6% '전국 최고'·스트레스 '전국 최저'

질병관리청 '2021년 지역 건강조사'

광주·전남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꺼리고 음주운전 경험도 많은 등 기본적인 안전 의식이 타 시·도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주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결과를 담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255개 보건소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2만 9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광주는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의식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3.2%로, 전년보다 0.4%p 떨어졌다. 제주(16.7%)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또한 26.7%로 전년 대비 5.2%p 낮아졌으며, 강원(26%), 전북(26.2%)에 이어 뒤에서 5번째를 차지했다.

또 전남은 전국에서 음주운전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운전자(자동차·오토바이)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전년보다 0.8%p 늘어난 3.6%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 또한 전년보다 1%p 증가한 2.6%로 나타났다.

시·도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전남에서 비만·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광주 비만율은 전년보다 1.9%p 늘어난 31.6%, 전남 비만율은 0.9%p 증가한 32.3%로 조사됐다. 광주 고혈압 진단 경험률(30대 이상)은 전년보다 0.8%p 증가한 17.1%, 전남은 0.4%p 증가한 18.2%를 기록했다.

꾸준한 감소세였던 음주율이 반등하기도 했다. 광주 월간 음주율은 지난 2017년 61.6%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0년 52.9%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54.5%를 기록해 다시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율 또한 전년 대비 2.1%p 증가한 11.9%로 조사됐다.

전남 또한 지난해 월간 음주율이 53.6%로 전년보다 1.1%p 늘었다. 대신 고위험 음주율은 전년보다 0.4%p 떨어진 10.9%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 모두 흡연율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2017년 최대 21.6%에 달했던 현재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7.4%로 떨어졌다.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남 또한 지난 2016년 22.5%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현재흡연율 17.9%을 기록했다.

한편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지난해 스트레스 인지율(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23.7%를 기록,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은 우울감 경험률 또한 5.1%로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는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느끼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년도보다 0.3%p 늘어난 27.7%를 기록했으며, 우울감 경험률 또한 5.3%로 전년 대비 1.8%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춤으로 표현해 봐

행사위, 임행진곡 등 배경 '오월의 댄스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42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 기념행사가 열정이 담긴 젊은이들의 몸짓으로 흥겨워 진다.

젊은 청년들이 각자 생각하는 5월의 모습을 전야제가 벌어지는 5월 17일 5·18당시의 현장인 금남로의 거리에서 춤으로 표현한다.

12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오월의 댄스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사위는 오월정신과 함께 전해오는 노래를 사용해 젊은 청년들이 춤으로 표현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준비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팀은 '오월의 노래' 또는 '자유곡' 중 음악을 하나를 선택(편곡 가능)한 후 창작안무를 구성해 동영상을 제작해 개인채널(유튜브)에 업로드 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시 원본 동영상을 이메일로도 제출해야 한다.

'오월의 노래'는 5·18의 정신을 담은 노래로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출정가', '오월의 노래2' 등이며, 5·18기념대단이 제작한 오월 음반을 자료로 활용해도 된다.

신청서를 토대로 28일 1차 심사를 통해 8팀이 선정되고 5·18전야제가 진행되는 5월 17일 금남로 시민난장에서 현장심사를 한다.

현장에서 최우수상(15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25만원·2팀) 등 총 4팀이 선정되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전야제의 본무대를 꾸밀 수 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천주교광주대교구, 세월호 8주기 추모미사

17일 목포 산정동 성당서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3시 목포 산정동 성당(목포시 노송길 32-6)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미사를 봉헌한다.

김희중 대주교 집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월호 참사 8년 기억미사'는 그날의 참사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미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희생자 가족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1부 '기억미사'에서는 교구장과 사제단이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하며 2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 이야기'에서는 고(故) 오준영(스테파노)씨 어머니 임영애(아가다)씨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10-3579-9326. /박성천 기자 skypark@

봄 나들이, 아니 여름 나들이 낮 기온이 28.7도까지 오른 12일 나주 영산강변의 유채꽃밭을 관광객들이 거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더위 식히는 단비…주말 평년 기온 회복

13일 낮부터 광주·전남에 비가 시작되면서 평년 기온을 최고 10도 이상 웃돌았던 초여름 날씨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던 더위가 13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고, 주말을 전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비는 곳에 따라 이날 낮부터 시작해 다음 날인 14일 새벽까지 오겠다. 곳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예상 강우량은 5mm 수준이다. 다만 구름 낀 날씨가 지속되면서 적은 양의 비에도 기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24도(평년 기온 19.1도)로 12일 29.2도보다 5도 이상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부터 차츰 기온이 내려가 주말인 16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평년 기온 20.6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은 최근 나흘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사량이 풍부한 데다 따뜻한 남서풍까지 불어오면서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르바이트해서 쌀 기부한 익명의 취준생

익명의 취업준비생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쌀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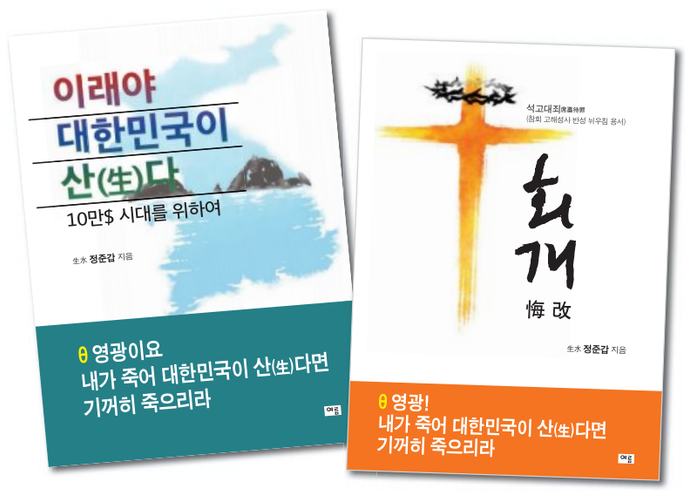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 최근 한 청년이 20㎏짜리 쌀 2포대를 맡기고 갔다.

이 청년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취업준비생이라고만 소개했다고 한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잘 크기를 바란다"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쌀을 기부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김군호 수완동장은 "취업난으로 고생했을 청년이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의미 있는 선행을 실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산구에서는 11년째 발 도장을 남긴 하남동의 '얼굴 없는 기부천사' 등 익명 후원자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生水 정준갑 지음 | 17,000원 | 13,000원 | 도서출판 여름(문의 : 02-2278-6990)

대죄인 **정 준 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주간(4.11.~4.17.)

＊책 내용을 宗教적으로만 보지말고 精神으로 보아주시고 아파트경비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록한 글

＊저자에게 주어진 도서 수익금은 전액 공익 기부함.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혼슈우는 즈그땅
(쓰시마)

아! 大 한국人이여! 일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깨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거듭나라
가슴·마음속에 숨어있는 민족 얼·혼·恨·통분·울분에
함성을 함께 외쳐라·뭉쳐라·밝혀라·세워라·행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간다.
(회개/고해성사/참회/반성/뉘우침)

1인당 국민소득 10만＄ 시대가 보인다.

타도하자 공산 독재주의
바로 알자 공산주의 사상
때려잡자 공산당
쳐부수자 마귀/귀신 미혹의 영
일깨우자 사회주의
개선하자 자유민족주의
바로 세우자 자유민주공화국
정립하자 자유민주주의
개벽하자 타락한 세상(세계)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정권이 되기를~

★창조주 여호와 θ께 회개하오며 국민께 고해성사와 참회를 하오니 괴수·금수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이 책은 대한민국을 구제할 **민족정신지도자 66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죄인이 국민·광주시민·호남인에게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전국광역시/도 및 각 시·군·구에 **33인 정신지도자** 선정.
[개신교 16인, 천주교 8인(성공회 1인 포함), 불교 8인(원불교 1인 포함), 유림1인]

詩 : 恨
무등산아! 무등산아!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나는 하염없는 인생이다만,
너까지 하염없는 모습으로 그러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여도,
너는 떳떳한 것을,
왜 그리 처량하니 지켜만 보고 있니!
자존심을 지켜다오. 자긍심을 살려다오.
자존감을 올려다오.
무등산아! 무등산아! 울지 마라. 무등산아!
힘내어라. 무등산아!